

메스리야마 (メスリ山) 고분

나라 분지 동남부에는 고분시대 전기 전방후원분이 집중되어 있다. 나라현(奈良県) 덴리시(天理市) 남쪽에서 사쿠라이시(桜井市) 북쪽에 걸쳐 오오야마토(オオヤマト) 고분군이 있고 그 남쪽 부근에서 5km 정도 더 떨어진 남쪽에 사쿠라이차우스야마(桜井茶臼山) 고분과 메스리야마고분 2 기의 대형 전방후원분이 있다. 모두 초기 야마토 정권의 대왕묘 또는 그것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유력자의 묘역으로 추정된다.

메스리야마고분은 사쿠라이시 다카타(高田)에 소재하는 분구 길이 224m의 전방후원분으로 1959년에 후원부의 매장시설과 그것을 방형으로 둘러싼 하니와(埴輪) 열이 발굴·조사되었다. 일본 열도 최대 높이인 2.1m의 대형 원통 하니와가 요소에 배치되고, 원통(円筒) 하니와와 굽다리 접시형(高坏形) 하니와가 총 106점 배열되고 있었다.

후원부 중앙에는 목관을 매납한 길이 8.06m에 달하는 수혈식석실(竪穴式石室)(주석실)이 있었지만 심한 도굴로 부장품의 유존상태는 좋지 않았다. 거울 편(鏡片)이나 의자 모양(椅子形)·빗 모양(櫛形)·팔찌 모양(腕輪形)·그릇 모양(容器形)의 석제품이나 쇠칼 편 등이 출토되었다. 주석실 동쪽에는 길이 6m에 달하는 수혈식석실(부석실)이 있고 전례가 없는 쇠활(鐵弓)·쇠화살(鐵矢)를 비롯해, 쇠창(鐵鎗)·쇠검(鐵劍)·쇠화살촉(鐵鏃)·청동화살촉(銅鏃) 등 다량의 무기와 돌화살촉(石製鏃)·옥장(玉杖)·가락바퀴 모양(紡錘車形)·대형 대롱옥(管玉) 등의 벽옥제품, 도끼(斧)·끌(鑿)·대패(鉋)·톱(鋸)·손칼(刀子)·낫(手鎌)·바늘 모양(針狀) 공구 등 풍부한 종류의 철제농공구가 매납되어 있었다. 부장품의 격납시설로 생각된다. 고분의 축조연대는 3세기 말~4세기 초두이다.

●옥장(玉杖)

부석실에 매납된 지팡이 모양(杖狀)의 위기구(威儀具)이다. 중국 한대의 「옥장」을 모방해 이 명칭이 붙여졌다. 총 4점이 출토되었고 두부(頭部)에 십자형의 장식을 가진 것과 날개 모양(翼形)의 장식을 가진 것 두 종류와 축부(軸部)가 철심(鐵芯)이고 벽옥제인 것과 유기질(목제로 추정)인 것 두 종류가 있다. 상설전시를 하고 있는 것은 벽옥제 두부의 두 종류와 하단부 사이에 축부의 추정 복원품을 조합시킨 것이다.

●복원 화살(청동화살촉(銅鏃))

부석실에서는 총 236점에 달하는 압도적인 양의 유엽형(柳葉形) 청동화살촉이 출토되었다. 석실 중앙에서부터 남쪽 부근을 중심으로 열 수 점 단위에서 팔십 수 점 단위로 하는 화살촉 다발이 총 8 묶음 출토되었는데 화살대를 장착하여 화살집에 넣은 상태로 부장되었다고 추정된다. 출토된 청동화살촉에 화살대·화살 깃의 추정 복원품을 장착하여 상설전시하고 있다.

●복원 화살(돌화살촉(石製鏃))

부석실의 돌화살촉은 총 50점이다. 유엽형인 것이 30점, 착두형(鑿頭形)인 것이 20점으로 유엽형인 것은 크기나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 착두형인 것은 거의 동형·동치수다. 모두 화살대에 장착한 흔적이 있는데 쇠화살촉·동화살촉이 장착됐던 화살대에, 녹색응회암제 돌화살촉을 새로 장착해 의례용으로 고쳐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